

‘법치 부정’ 초유의 ‘尹 지지 폭동’...“전원 구속수사”

검경, ‘폭동 사태’ 엄정 처벌

서부지검·형사기동대 전담수사팀 대검 “불법 폭력 점거...중형 구형” 경찰청장 대행 “극우 유튜브 수사” 경찰,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 보호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물들과 집기 모습.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전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력 난동 시위와 관련해 전원 구속수사는 등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도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에 대해,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연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서부지검 전담팀은 총 9명 규모다.

윤 대통령 구속을 전후해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들은 8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부지법을 무단으로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철수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 차량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8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서부지법 앞에서 폭력 난동 등 집단불법행위를 한 윤 대통령 지지자 86명을 연행하고, 이들을 엄단하기 위한 수사전담팀도 편성했다. 연행된 86명은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무단행위, 공수처 차량방해 등 혐의로는 40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11개 경찰서 수사과에서 전담 수사한다.

이날 오전 3시께부터 서부지법에 집단적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혐의로 연행한 이들은 지금까지 46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7개 경찰서 형사과에서 수사받는다.

전담수사팀은 형사기동대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한 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서울서부지법을 찾은 뒤 취재진을 만나 “극우 유튜브의 선정·선동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질문에 “배후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살해 협박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것과 관련해서 “협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찾아낼 것”이라며 “아울러 신변 보호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차 부장판사 요청으로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

이 대행은 “폭력 불법에 대해서 이런 사태 일으킨 사람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점검한 후 이 대행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를 만나고 나와 “유례없는 참담한 사건을 맞이해 사법부가 격정한 바를 경찰에 전달하기 위해 왔다”며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자 열심히 노력하자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전 처장은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봐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오지현 기자·뉴시스

‘충격의 법원 습격’... ‘소요죄’ 적용시 최대 징역 10년

‘폭동 사태’ 혐의·형량은

사법부 권위 훼손 ‘중대 범죄’ 해당 특수공무집행방해·모독죄 등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벌인 일부 지지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형법상 폭동 소요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폭동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

례가 없는 사법부인 법원을 상대로 벌인 집단 불법 점거 행위인만큼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무거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폭동 가담자들에게는 소요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및 법정 모독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위대는 이날 새벽 경찰 장비를 빼앗고 이들을 폭행하는 등 물리적 폭력을 자행했다. 이는 형법 제 136조 공무집행방

해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 144조에 해당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될 경우 최대 7년까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량(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동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까지 적용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있다. 공동취재

될 수 있으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더불어 집단적인 폭력 및 협박, 파손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언론 및 극우 유튜브버들의 생중계를 통해 알려지며 소요죄 적용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 115조에 해당하는 소요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사상 초유의 헌법기관 공격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공동주거 침입죄 및 공용물건 손상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이 가능한 만큼 처벌 수준은 가법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오지현 기자

주택공급계약서 분실공고
주 소 : 전남 담양군 고서면 등온로 636번지 103동 92호
계 약 자 : 김모세
연 락 처 : 010-3124-1326

광고 문의
직통 (062) 519-0710
팩스 (062) 519-0709

동래정씨 종원총회 소집공고
참석자격 : 동래정씨 성인 남녀 중 광주, 전남, 전북에 주소를 두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
일 시 : 2025년 1월 24일(금) 11:00시, TEL (063) 237-2556
장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중앙로 3 (양현빌딩 6층)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과 동래정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할 것
안 건 : 제 1호 의안-회원 확인에 관한 건, 제 2호 의안-임-대의원 선출에 관한 건, 제 3호 의안-기타 토의 안건.
2025. 1. 20.
동래정씨 호남화수회 회장 정 재 영

채권신고공고
본 협동조합은 2024. 11. 21. 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산되었으므로 본 협동조합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5. 2. 10.까지 그 채권액을 본 협동조합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월 20일
순천소망협동조합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173, 106동 1205호
(용당동, 용당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청산인 권양자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당 회사는 2025년 1월 3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고 2025년 1월 14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당 회사의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이나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주식회사 동양파라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76, 107(상가1동)동 지하1층 103호(10호)
(주월동, 주월동이지더원아파트1단지) 청산인 이 동 진

드론타임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 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호텔/펜션 학교/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당 회사는 2025년 1월 3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고 2025년 1월 14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당 회사의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이나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주식회사 동양오승개발
광주광역시 남구 서오층석탑1길 7-1 (서동)
청산인 안 지 훈

부동산매매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산 29-17 6968㎡(2108평)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산 892-4 550㎡(166평)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전 920-1 3973㎡(1202평) = 11491㎡(3476평) 9억원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전 919-1 2386㎡(722평)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전 919-13 44㎡(13평)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창 919-14 1072㎡(324평) = 3502㎡(1059평) 3억원
전체합계 14,993㎡(4535평)
계획관리지역, 도로에서 진출입가능
010-9119-4981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 그 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